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박차

황인홍 군수, 지원 계약재배 품목 중 하나인 수박 선별장 찾아 농가 격려

무주군이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농산물 가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1백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직접 재배 생산한 농산물을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농산물매취(수박), 저장, 판매 사업 및 손실보상, 또 시장 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 산지 폐기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수박'을 비롯한 '사과'와 '포도', '생전마', '생오미자', '잡곡', '머루', '복분자', '여름딸기', '천황대추' 등 공공급식 기획생산을 위해 계약 재배한 품목을 지원하는 한편, 자가 선별 유통하는 품목은 전체를 지원한다.

한편, 황인홍 무주군수는 29일 수박 선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안성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찾아 5월에 매취 약



황인홍 무주군수는 29일 수박 선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안성면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 농가들을 격려했다.

정을 체결했던 '흑미'와 '블랙위너' 품목에 대한 품질과 물량 등을 확인하며 농가들을 격려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총 53농가(23.9ha)로 예상 물량은 159,734통(1,088톤)이다. 무주군은 판매 가격이 최초 결정된 매취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수매단가를 변경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에서는 1

백여 농가(33.23ha)가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맛도 품질도 월등하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는 흑미 수박 육묘를 23만여 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했다"며 "농가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활 인구로 지역 활력 도모

무주군, 2만명 거주·생활 인구는 28만여명... 지방소멸 위기 극복 나서

무주군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답은 지역에 머물며 실질적인 소득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 인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행안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사의 모바일 자료 활용)한 생활 인구 산정 결과(2024.1.~3.)에 따르면 무주군민을 제외한 무주군의 1분기 체류 인구는 평균 26만 8천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1.6배에 달한다.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1월에 40만 3천여 명, 2월에 27만 9천여 명, 3월에는 25만 3천여 명으로, 1월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 2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주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군청 인구정책과 이동훈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스키와 보드 등 동

계 레포츠와 눈꽃여행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설 연휴 귀향객들의 방문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의 경우는 리조트와 덕유산 계곡, 휴양림 등의 영향으로 겨울과 여름철 방문이 특히 두드러지고 나머지 계절 역시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적상산 등 주요 관광지과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단풍절 등의 영향을 받아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를 상회한다"며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무주군은 인구정책 방향을 체류 인구, 말하자면 생활 인구 쪽에 맞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실행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대표 상징물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

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추진된 이번 용역은 군의 고유한 가치, 환경,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상징물을 개발해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강경덕 부군수를 비롯한 군 내부 국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호도 조사 결과 보고 △대표상징물 디자인 최종 결정 △의견수렴 및 제안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2023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결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난 1월 대표상징물 제작 용역을 착수했다. 4

월 중 10일간 전 군민과 전문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상징물 디자인의 기본형을 결정했다.

이후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5일 군민의 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청정 환경을 자연유산으로 보전한 장수군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물의 으뜸 고장이다"며 "치밀하고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의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인 군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상징물 개발에 전념해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8월 4일 개장

품질 좋은 고추를 직거래하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오는 8월 4일~10월 19일까지 진안 장남인 매 4·9일마다 오전 6시부터 진안시장 임시주차장(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79-10 번지)에서 열린다.

이번 개장일은 이전 고추시장이 8월 14일 개장됐던 것에 비해 열흘 앞당겨졌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고추 수확 시기가 빨라짐에 따른 생산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진안군은 진안 마이산 고추의 신뢰성을 위해 생산자 설명 등을 기재한 전용 포장재 6만여 매를 생산자에 미리 보급해 시장 출하 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유도 근무자 등을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진안 고추는 해발 400m 이상의 일교차가 큰 고원에서 재배하여 색깔이 곱고 향이 좋으며,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중평국 보존회 '술매이 굿' 개최

전라북도 진안 중평국 보존회는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30분 진안 전문문화전수관에서 '술매이 굿' 행사를 개최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중 날이나 칠석날이면 일손을 놓고 편히 쉬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굿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용기종기 모여 앉아서 서로 술을 권하며 담소를 나누며 노동의 피로를 풀고 시름을 달래고,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애를 나눴다.

이에 2003년부터 진안 중평국 보존회에서는 매년 술매이 굿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유 관람과 논산 두레패의 초청공연, 기고사, 마당 판극을 선보인다.

공연 이외에도 민속놀이(제기차기, 널뛰기, 팔씨름 등)와 문화 체험(숯대만들기, 팽과리, 시계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가 경영안정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해야”

이루라 진안군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은 29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일수를 확대 운영하고 농가 자부담 비용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다른 도우미 지원사업과의 지원단거나 지원일수에 차등이 없도록 조정하여 농가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진안군 영농도우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 노동력 향상과 경영의 안정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신활력 추진단, 3인 3색 지역작가콘서트 가져

장수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단장 송남수)은 지난 27일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장수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지역작가들과 '3인3색 지역작가콘서트 3STORIES'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러스트 작가 김휘승, 회화작가 호야, 동화작가 김민지가 참여했으며 작품전시, 드로잉쇼, 작가와의 만남 코너 등을 통해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적

극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휘승 작가는 전국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로 「안녕,밥꽃」, 「이슬 우와, 거리 두고 읽기」, 등 다수의 책에 표지, 삽화, 시사만평 등의 작품활동을 했으며 지역에서도 장수청소년공간 '달빛프로젝트'에 참여해 만화·웹툰·진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야(배철호) 작가는 「SIAM:공존」, 「나무들의 밤」 등 다수의 개인전과 금

천구, 장수군, 임실군, 부여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및 조형물 작품활동을 했으며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지 작가는 '어른이' 동화 「조각달」을 출간하고 '의병장 박춘실' 애니메이션 제작·전시 등 지역에서 활발한 청년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이날 특별무대에서는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연주도 진행됐으며 유려한 실의 다양한 식물들과 어울리는 작품전시 등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